

2002년 11월 27일

여약사대회 연설

우리 존경하는 장복심대회장님 그리고 한승원회장님 그리고 약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뜻 깊은 대회를 제 고향 부산에서 이렇게 열어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꼭 공식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번 민주당의 국민경선 당시에 사실상 많은 약사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여약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지 기억이 나고 그 뒤에 인사라도 한번 드리려고 다시 만나뵈신 분들은 다 여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약사 여러분들께 한번 더 감사인사 드립니다. (박수소리)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그동안에 한참 지지를 떨어지고 해서 이제 대통령되기 글렀는가보다 싶을 때 무척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스스로도 답답했지만 저를 지지해 오신 분들께 정말 송수스럽고 미안했습니다. 이제 조금 깨어납니다. 조금 올라가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몽준 후보님하고 준결승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내일 여론조사 끝나면 준결승자가 정해지는데 누가 결선에 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가 갈 줄로 생각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마음은 이렇게 넉넉하면서도 속은 좀 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의약분업을 비롯해서 모든 의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하

게 밝혀라 그리고 약속할 것은 약속해라 이런 뜻으로 부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소리) 그동안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약사들인들 왜 불편이 없었겠습니까?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약사님들인들 왜 희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곳곳이 의견을 통일해서 의약분업제도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기준은 원칙입니다. 의약분업은 원칙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하자고 합의한 것이고 누구도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의약분업을 감히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64년에하기로 결정된 것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94년에 와서 법 만들어놓고 시행시기를 뒤로 또 밀었다가 99년에 와서 또 한 해 더 밀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실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잘한 것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의약분업입니다. (박수소리) 원체 어려운 일이고 표 떨어지는 일이고 또 집단적인 저항이 강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 굳게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눈치 살피지 않고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정부의 내놓을만한, 자랑할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좀 부실했다든지 또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비난은 들어 마땅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시행한 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박수소리)

지금 이 의약분업제도를 시행착오를 고친다든지 불편을 시정한다는 이름으로 그 본질을 훼손하려는 끈질긴 시도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간에도 이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청원대표님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을 바로 잡을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박수소리)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편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성분명조제 이것 허용해야 됩니다. (박수소리) 첫 번째는 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사들의 전문직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해 준다는 뜻에서도 (박수소리) 성분명조제와 대체조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준비부실도 있지만 일부 이해집단들의 치열한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분처방약품명 목록(?) 이 약품목록에 대한 협의와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것은 이것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박수소리) 많은 약사들이 많은 동네약국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재고가 쌓이고 엄청난 자원이 부담되어서 약국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약값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별로 남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수소리) 다소 약사의 사회적 지위를 의사하고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약사제도를 실시하고 약사제도와 약품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의 교육기간도 6년으로 늘리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소리)

제 말씀이 좀더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여성약사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또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저는 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비롯해서 또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육아의 부담, 보육의 부담을 덜어드릴 확실한 처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堂堂하게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자기 몫을 다하는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약을 개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은 내버려놓고 지역감정가지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이 병 낫게 하는 혹시 약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수소리) 확실하게 정책을 풀어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리병병

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여넘기려고 하는 이 잘못된 병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약품을 한번 개발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여성 여러분들께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소리)

여러분들의 양심은 저희도 또한 문외한이지만 약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더 정책과 관계없이 지역감정으로 이상더 ... 또는 현실성없는 거짓말로 금배지를 달고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이제 저는 지금 정몽준 후보와는 예선을 거쳐야 되고 또한 이회창 후보와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제가 맞서있는 상대는 진정한 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 후보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진정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어떤 특정정치인이 아니라 낡은 정치 썩은 정치입니다. 이제 낡은 정치는 확실하게 갈아치울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의약분업도 확실하게 되고 모든 의료정책도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